

함께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나눔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함께이기에
참, 따듯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함께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지 - 창간호 Vol.1

- 04 수업을 배우다, 배움을 배우다 - 경상남도교육청 초·중등교육과
- 12 아름다운 섬지기 - 밀양중학교 교장 / 강순보
- 16 옆구리를 찔러본 자가 말하는 수업혁신의 시작 - 거창 아림고등학교 교장 / 천두희
- 20 학교를 바꾸는 설득의 힘 - 김해 능동초등학교 교장 / 박정화
- 24 학생을 보면서 교사의 변화가능성을 믿다 - 김해여자고등학교 교장 / 이정숙
- 28 '웃음소리' 그것이 가장 큰 성과 - 진주 제일중학교 교장 / 조창현
- 32 초등교사 talk & talk - 교사, 함께 성장하다
- 40 초등사례 - 똑똑한 내가 모여 따뜻한 우리가 되어 가는 길 - 진해신항초등학교 / 김명숙
- 43 중등교사 talk & talk - 이제, 교사가 된다
- 52 중등사례 - 생생학교 이야기 - 통영고등학교 / 조보형
- 56 중등사례 - 행복의 열쇳말, 내 옆의 동료 - 양산중학교 / 최선희
- 60 편집후기



수업을 바꾸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 권의 책, 한 편의 영화가 인생을 바꾸듯이
한 시간의 수업을 바꾸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수업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아이들이 우리미래를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수업은
어쩌면 우리선생님들의 “삶”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담아 두기 아까운 선생님들의 수업이야기를
이제는 함께 나누어 보려합니다.
함께 바꾸어 보려 합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육열정을 불태우며 묵묵히 참교육의 길을 걷는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교육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2018. 11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수업연구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제안하며

수업을 배우다, 배움을 배우다

2015교육과정에 드러난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세계 교육개혁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은 21세기를 살아갈 학습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우리교육이 추구하는 ‘미래핵심역량’은 배움중심수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배움중심수업입니다.

배움중심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언제든지 모르는 것을 물으며 참여하고, 친구의 아이디어를 자기 사고의 디딤돌로 삼거나 자신의 소소한 발상도 친구와 지혜를 모아 함께 큰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곧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협동적인 교실입니다.

배움중심수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는 전문가 교사들의 학습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배움에 힘쓰는 교사들은 각종 연수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정작 수업전문성향상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내용은 찾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수업공개, 수업연구회, 교사연수, 교사동아리 활동 등은 그 자체로 훌륭한 학습공동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 속에서 교사들은 힘든 일이나 갈등도 겪지만 서로 기대고 도우며 함께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동료성, 그 속에서 교사의 개별적 수업 경험을 나누는 협의회. 일상 수업공개와 성찰 그리고 협의회를 통해 서로 배우는 현장연구는 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을 깨어있고 성장하게 합니다. 더불어 학교가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커갑니다.



‘수업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무엇인가요?

수업 전문가인 교사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공동체이며,
핵심활동은 수업연구입니다.



왜, 전문적학습공동체 입니까?

학교는 교사 연수의 최적화된 현장이며,
교사는 수업공개와 협의회 등
수업나눔으로 전문성이 향상됩니다.
수업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주요 활동은 수업고민 나누기, 교육과정 읽기,
학년별 또는 교과별 연간 운영계획 협의, 교육과정 재구성하기,
수업 방법 및 평가내용 협의, 수업나눔 및 수업 성찰,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한 자료 공유, 수업과 평가 혁신관련 협의,
독서토론 등 그 내용이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업전문가로서의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수업연구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학교의 우선적 배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계획단계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시간을 정하고 업무담당 부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안내를 통해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 안정적 정기적 지속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월 1회 또는 주 1회 등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수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수업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수업전문성의 향상은 교실현장의 수업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업 전 협의회-공개수업-수업 후 협의회 및 수업참관과 수업성찰이 그 내용입니다.

**셋째, 초빙전문가의 수업컨설팅 및 수업개선관련
연수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수업컨설팅은 수업교사와 참관교사의 견해를 보다 더 확장시키며,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의 제공은 교사의 전문성을 자극하고 이를 향상 시키려는 의식을 고양시킵니다.



**넷째, 교내외 수업개선 연구회 배려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과별, 학년별 혹은 다양한 교사들이 함께 하는 교내 수업연구회를 위해 운영시간 조정, 기타 필요물품지원 등 학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교외 연구회 활동을 통해 수업에 변화를 시도하고 성과를 경험하면서 학교를 바꾸는 데 조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질높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독서토론관련 연구회는 독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켜 창의적 교육과정 읽기를 가능하게 하며, 수업설계 시 학습자가 접속할 과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 독후 토론은 주제 중심의 논의로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을 교류하는 과정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축교사와 지원교사란?

수업연구회는 수업을 바꾸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변화의 주축이 되는 교사와 지지를 하는 교사는 서로를 지원하는 힘이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토대를 이룹니다.

다섯째, 관리자의 참여는 교사의 참여를 이끄는 힘입니다.

시간을 지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관리자는 교사의 참여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교사들이 일상수업을 공개하고, 세심히 참관하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의 전문성 향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관리자의 관심과 설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교내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3시 5분까지 각종 영어교과실에
미리 입실하여 공개수업을 참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수업을 통해 성장합니다.
배움중심수업 컨설턴트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컨설팅을 부탁드립니다.





수업연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업연구는 사전협의회, 수업공개와 참관, 사후협의회 그리고 성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협의회는 시기와 필요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는 교과별 교육과정 읽기와 이해하기를 통해 교과의 본질과 역량을 파악하는 일이 먼저 시도됩니다.

교육과정, 교과역량, 내용체계, 성취기준을 자원으로 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모든 학습자가 과제와 만날 수 있는가?’,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개수업은 참관 교사들이 모둠별로 나뉘어 수업디자인과 학생의 배움, 교사의 돌봄 등에 대해 세심히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협의회에서 관찰한 내용을 나누는 과정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참관 후에 이루어지는 협의회에서는 관찰한 모둠을 중심으로 모여 수업에서 발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배운 점을 나눕니다. 관찰한 바를 토대로 분석하고 자신의 배움을 나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연수활동입니다.



수업협의회에서 지양해야 할 것은, ‘~와 ~은 좋은데 ~과 ~을 고치면 더 좋겠다’와 같은 수업에 대한 조언이다. 이는 동료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후 공개수업을 전시성 수업으로 전락시켜 수업연구의 의미를 훼손시킨다.

Q

수업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A

[학생의 배움]

경청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단계의 배움으로 나아가는가?

[교사의 돌봄]

배움에서 소외된 학습자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모둠의 돌봄]

배움에 참여하지 않던 학습자가 어떻게 수업에 들어오는가?(모둠원과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모습, 학습지의 과제 작성 등), 서로 배우는 협동적 배움이 이루어지는가?

[공유]

학습자의 발표와 교사의 연결짓기 및 되돌리기를 통해 오개념 수정, 모둠간 격차감소 등 지식의 공적 성격이 강화되는가?

수업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서로 공유하고, 수업설계와 학생의 배움, 교사의 돌봄과 수업진행, 함께 실천할 과제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사례연구는

전문성 강화의 효과적 방안입니다. 수업을 기록하는 효율적 방안으로 제시되는 수업촬영은, 동료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 연구 자료 또는 수업자의 자기 성찰 자료로 활용합니다.



수업성찰은

수업연구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반성과 비평으로 이루어지는, 서로의 지식과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업협의회, 어떻게 하나요?

1. 진행자 소개
2. 수업협의회 방법 안내 : 동료교사들과 함께 하는 배움의 시간
3. 협의회 시 '배운 점을 나누고 조언은 삼갈 것' 안내
4. 수업자소개 : 수업자의 수업의도 들어보기
5. 수업자 : 수업의도 이야기하기
6. 모둠별 학생의 배움 관찰내용 나누기
7. 관찰내용 모둠별 순차적 발표
8. 학생 관찰 외에 수업디자인, 교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나누기
9. 수업협의회정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과 연수, 연계할 수 있나요?

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교육과정 계획에 포함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수업연구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교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현장연수입니다. 연수의 총괄 진행을 학교장 책임 하에 두고 전반적 운영을 교감이 관리하며, 학교 안에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지원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수업혁신지원팀, 학교혁신과 행복교육센터 등은 교내 연수관련 강사 인력풀 안내, 연수계획수립지원, 연수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 업무담당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계획을 활용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지기

밀양중학교 교장 강순보

교감 시절, 선배 교장선생님께서 떠나는 인사로 내게 ‘이제부터 혼자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실감날 때가 있다. 이 자리를 ‘오래 전에는 교직의 꽃이라고 했다’고도 말씀하셨다. 아마 그 선배 교장선생님은 몹시 외롭고 무척 힘드셨나보다. ‘자주 찾아뵙고 말씀에 귀도 열어드렸어야 했는데, 내 코가 석 자인지라 허둥대며 살았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과 ‘그때 자리의 고충과 해결 방법들을 배워들 걸.’ 하는 안타까운 마음 간절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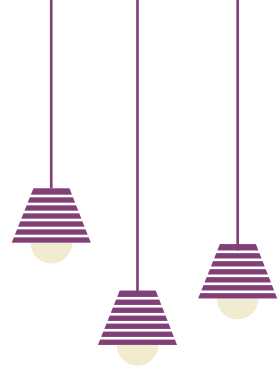
나는 아직까지도 교장에 대해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을 찾지 못했다. 가끔 ‘그 좋은 시절에 어찌고 ……’하는 힘들고 재미없음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말이나 실추된 권위 혹은 발휘하기 힘든 역할 등으로 자조 섞인, 또는 자괴감을 느끼는 표현들이 귀를 채울 때가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되짚어 보면 그래도 교장은 ‘아름다운 섬지기’가 아닐까 한다. 지금 나 있는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물어보고, 누구보다 손과 발을 먼저 움직여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찾아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 따가운 눈총알받이 활동들

처음 선생님들의 수업 나눔을 독려했을 때도 그랬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옆반 아이들이 왱자지껄 웃으며 너무나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나 괜히 궁금해진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로 그동안 여러 차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수업을 선생님들께 권하여 보았다.





오늘도 내 역할이 다하는 그날까지 머물고 있는 이 섬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아름답고
기쁨 가득한 곳이었음을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섬지기로 살아가리라 스스로 다짐해본다.



아직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학교의 선생님들이 하나둘 수업을 공개하고, 외부 컨설턴트를 불러 수업 후 협의회를 하고, 학교에서 마련한 학생중심의 수업 연수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동안 우리학교는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3학년부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다. 월별로 공개수업, 외부 컨설턴트 초청 컨설팅, 협의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2학기는 그동안 잘 이루어지 않았던 수업 후, 평가 및 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개수업을 3명으로 제한하고 수업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12월로 예정된 워크숍에서는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찬반의 의견이 벌써부터 분분하다. 학사일정도 빠듯한 데다 선생님들이 수업 이외에도 담임업무 및 행정업무가 많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힘들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수행평가 실시, 학습지 검사만 해도 하루가 부족한 데다 공개수업은 여전히 마음을 내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가치관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천적 내면화에는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너를 통해 나를 일깨운다”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업방법을 찾아 정리하여 나눠 드린 적이 있다. 한번은 같이 근무하던 기간제 선생님이 찾아와 “작년 임용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는 바람에 웃었던 적도 있다. 또한 교과와 특성이나 개인적 성향 등을 생각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교수 방법, 학생들의 행동 특성 이해, 진로 등과 관련한 책들을 안내하고 권하고 있다. 몇 분 되지 않지만 읽은 소감을 들고 찾아오면, 스스로 흥분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와 모방을 통한 힘찬 발돋움이 생기는 것 같아 기쁘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더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가꿀 수 있다고 판단되어도 구성원들의 뜻을 맞춰 한 삽 뜨는 일은 정말 어렵다. 그 길을 만든다는 자체부터가 힘들고, 두렵고 귀찮다. 그동안의 관행이나 습관이 교사들의 도전이나 의지(의욕)에 불을 잘 당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엄두를 내거나 시도를 하는데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그러면 그 길의 필요성, 취지를 안내하고 생각들이 모아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린다. 간혹 내 방 문이 열리면 답을 가져오나 싶어 흥분되기도 한다. 그런 길을 함께 열어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길 중 하나가 융합수업이다. 몇 년 간 융합수업실천에 대한 간절함이 컸지만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생소하고 교과서 밖의 내용을 수업을 해보자는 제안이 어렵게 느껴지는 탓도 있는 듯하고, 교과간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아직도 진도에 대한 애착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능성을 깨치기 위해 학교 행사를 통한 실현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밖에 행사 참여 활동(연극 관람 등)이 이루어지는 날은 반드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도안 작성에는 다른 교과 교사와의 조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화의 절실함을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 내년도에는 이 수업이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나는 학교라는 이 섬이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가득한 곳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욱 머물고 있는 여기를 볼거리들이 많은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동안 여기서 내 부족한 부분과 시행착오를 슬기롭게 수습하면서 함께 걷게 해 주신 교감선생님과, 애씀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면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 이 분들이 있었기에 비가 내리고 눈발이 쏟아져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꾸어나고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한다.

느린 걸음이라도 손잡고 기분 좋게 날마다 섬 길을 살피봐야겠다. 오늘도 내 역할이 다하는 그날까지 머물고 있는 이 섬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아름답고 기쁨 가득한 곳이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섬지기로 살아가리라 스스로 다짐해본다.





옆구리를 찔러본 자가 말하는 수업혁신의 시작

거창 아림고등학교 천두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꼭 운영해야 합니다.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들릴 겁니다. 우리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른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배움중심수업도 실천해야 하고 입시성적도 좋아야 하니 욕심이라고 하겠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면 결국엔 하나 씩, 둘 씩 변하다가 학교 전체가 변할 것이고 결과도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학교는 흡연학생이 많았었는데 예전부터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업 중에도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학생도 있었으니까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학교라 빈 교실이 많았던 것도 학생들이 흡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학교가 아무리 지도와 통제에 힘을 쏟아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는데, 행복학교를 준비하던 중, 선생님들의 제안에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롯이 선생님들이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서로 배우는 시간을 통해 수업을 바꾸기 시작하자 아주 조금씩 학생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학생자치도 이루어지면서 학교 전체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가 어디로 달려가든지 종착점은 학생과 교사의 ‘좀 더 행복한 학교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선생님들의 뜻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교장인 저의 일이었습니다.

3년 내내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이었다

지금 우리학교는 행복학교입니다만, 행복맞이도 행복학교도 아닐 때 몇 분의 선생님이 ‘ㄷ자’형태로 책상 배치를 바꾸면서 수업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후에 학교 안 공개수업도 있었고, 학교 밖 공개수업도 있었죠.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나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범학교도 아니고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들이 각자의 열정을 모아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선생님들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있었던 지역 공개수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근 중학교 선생님들이 참관을 왔는데, 그 날 협의회를 하던 중에 “00학생은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고, 3년 내내 수업시간에 잠을 자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는 필기도 하고, 발표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놀랍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야!” 했습니다. 뭔가 ‘이런 수업이 있긴 있구나. 수업이 바뀌니 아이들도 움직이는구나’라는 감동이 담긴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69.745

사실 우리 학교는 수업시간에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것이죠. 지켜보는 교사들의 고민이야 말할 것도 없이 깊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때 행복학교가 우리 앞에 툭 던져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들과 참 많이, 오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69.745

행복학교를 신청하자는데 찬성하신 분들의 비율이었습니다. 난감했죠. 반올림을 해서 신청하자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절박한 심정의 설득이 있었고 재투표를 통해 100% 찬성표가 나왔으며 든든한 마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학교는 행복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아림고가 있게 된 것은 함께 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비전의 공유가 없는 상황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추진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림고의 동력에 해당하는 선생님들과 소통 속에서 협력하는 선생님들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아, 물론 소소한 갈등도 많고 조금 큰 갈등도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상황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옆구리를 찢리다

수업연구대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예전 수업연구대회에서 1, 2 등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실 겁니다. '학습목표를 가운데 적어라,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써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재고, 감점을 하고.....아마도 그런 경험적 관점에서 교사의 수업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수업관찰 방법에 익숙한 교감이었습니다.

우리학교 공개수업을 참관한 후 협의회 시간이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학습목표를 칠판에 적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옆자리에 앉아계시던 선생님이 제 옆구리를 쿡 찢르면서 눈짓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예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그동안 수업을 보는 방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요즘은 수업 전 연구회, 수업 참관, 수업 후 연구회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교과와 본질과 수업 교사의 철학, 우리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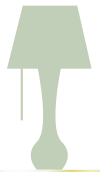
모르긴 해도 교장선생님들은 예전 관점에서 수업을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을 보는 관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씩 옆구리를 찢려 봐야 할 것입니다.

수업을 하는 반만 남기고 다 보낸다고?

아림고의 개혁에서 가장 정성을 들인 것은 수업공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급이 수업을 공개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학급도 남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운영한 새학기 워크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했고 공개수업을 하는 날은 그 학급만 남기고 나머지 학생들은 귀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학교와 비교되는 것도 그렇지만 생활지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치열한 의논을 거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장이 할 일은 선생님들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학교는 2학기에도 수업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다 보낸 후 한 학급만 남겨서 공개한 수업에 전교사가 참관을 하러 왔습니다. 물론 저도 참관 후 협의회에 참여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면 존재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교가 변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 필수가 된 지금, 교장의 모습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구리를 찔러가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걸음씩 노력 중입니다.

지금의 아림고가 있게 된 것은 함께 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비전의 공유가 없는 상황에서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추진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김해 능동초등학교 교장 박정화

학교를 바꾸는 설득의 힘

- 프로젝트 학습과 러닝페어로 역어가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이야기-

학교변화와 혁신을 향한 확고한 의지와 지원을 높여가되, 단위학교 상황에 맞는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더디더라도 기다려주며 학교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함께 꽃피워 가기를 기대합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올해 초 학교교육과정 워크숍에서 액티브러닝(능동적배움)이 중요한 협의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깊이 있는 토론 끝에,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방식으로 바꾸어보자고 의지를 모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프로젝트학습」과 「러닝페어」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교육과정에 능동적배움이 효과적으로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고심한 부분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었는데, 이를 위해 교실과 교과의 벽을 허물고,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수업개발을 실천하며,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신장하는 학년 단위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최대한 간소하고 재미있게

‘한번 해 봅시다’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들은 경계와 불안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가시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최대한 간소하고 재미있게 운영해 보자’는 설득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학교비전에서 제시된 능동적배움은 교과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반영한 프로젝트학습과 러닝페어 교육과정 속에서 학년별로 계획되었습니다.

러닝페어는 프로젝트학습의 과정과 결과 또는 더 공부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다른 학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활동으로써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전히 학생들의 배움을 관찰하며 지원하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문화 만들어

“학생들은 저 한 사람의 담임교사를 만나게 되지만 저의 수업과 학급운영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얻은 여러 선생님들의 역량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학교 선생님이 수업후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선생님들과의 공동연구가 일상의 수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는 일이 잦아지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수용 범위도 늘어나서 새로운 일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배움과 성장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되어 일자형이었던 책상배치가 ㄷ자, ㄹ자로 바뀌는 등 교실수업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은 학생생활의 전반에 스며들어 ‘능동적 참여’라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개수업과 수업협의회에 수평적 차원에서 성실하게 참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문제점으로 거론하는 것은, 학교비전 공유 미흡, 시간 부족, 학교관리자의 의지와 지원 부족, 리더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문제, 잘못된 교직원화 등입니다. 우리학교는「러닝페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년마다 연간 60만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 월 1회 운영하는 교직원 회의 시간을 지시 및 전달 방식에서 교육과정 의견수렴과 주제토론, 수업컨퍼런스 등으로 운영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학교의 노력입니다. 또한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관리자로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공개수업과 수업협의회에 수평적 차원에서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집단의 전문성을 함께 향상시켜야

수업에 대해서는 달걀판의 달걀이 제 칸을 나오면 다른 달걀과 부딪쳐 깨지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서로의 수업을 보거나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호불간섭의 교실문화 속에서 혼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개인별 전문성 개발만으로는 날로 더해가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교육현장의 복잡성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선생님들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의 실천을 협력적으로 탐구하여 집단 속에서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에 옮겨 보기 전의 걱정은 막상 해보고 나면 기우

러닝페어는 다른 학반, 다른 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표하고 상호평가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학기 초 선생님들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러닝페어를 학부모에게 공개함으로써 일회성 행사로 운영하고 있는 학예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동학년 내 공개로 멈춘 것이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학교는 기꺼이 선생님들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러닝페어가 시작되었을 때, 선생님들은 감탄과 탄식을 동시에 쏟아내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의미 있는 학습 잔치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천에 옮겨 보기 전의 걱정은 막상 해보고 나면 기우인 점을 깨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선생님들이 실천한 러닝페어의 성공적 경험은 수업컨퍼런스라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이상의 우리학교 이야기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싹을 틔우는 단계의 사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학습과 러닝페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공이산(愚公移山)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어리석어 보였던 우공이 산을 옮겼듯, 어려워 보이는 일도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면 못할 게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변화와 혁신을 향한 확고한 의지와 지원을 높여가되, 단위학교 상황에 맞는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더디더라도 기다려주며 학교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함께 꽃피워 가기를 기대합니다.

어리석어 보였던 우공이 산을 옮겼듯,
어려워 보이는 일도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면 못할 게 없을 것입니다.





김해여자고등학교 교장 이정숙

학생을 보면서 교사의 변화가능성을 믿다





9월 부임 이후 우리학교를 면밀히 살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면서 이래저래 바쁘게 지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얘기를 시작해야겠군요.

우리학교에는 8명 정도의 교사들이 수업혁신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배움중심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움중심수업의 확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분명 우리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내용도 배움중심수업실천을 통한 전문성향상과 관련이 깊은데 왜 교내에서의 확산이 더딜까라는 현황 점검에서 시작된 것이죠.

업무경감에 대한 고민도 더해지고 '좀 더 빨리 배움중심수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데'라는 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혼자 깊은 고민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교실을 돌아보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자. 선생님들이 마음을 내어 실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토의토론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권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선, 조금 남아있는 목적사업비 예산을 조정하여 우선 교사대상 수업·평가 관련 연수비를 교과별로 분배해 총12명의 교사가 30시간 원격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수업혁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첫 단추 꿰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정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활동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10월 공개수업 기간 동안 교실 수업 분위기가 알고 싶어 여러 차례 시간을 내어 참관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발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후 선생님들께 저의 소감을 말했더니, '교장 선생님, 우리학교는 여학교여서 그런지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 지도나 방법에 민감하고 주어진 과제도 열심히 수행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 그렇다면 한 번 해보자! 계획했던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수업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 변화의 모습을 기록해줍시다!’라고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장인 저에게 10월은 학생의 수업참여 모습을 보면서 교사집단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찾잔 속의 태풍

교내 교사연구회나 교사 자율동아리 형식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모임 소속 교사들만의 연구로 범위가 좁아져서 찾잔 속의 태풍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운영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라는 시기적 요구에 맞추어 학교조직도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아, 물론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어 수업연구를 중심으로 학교 전체가 연수 장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창의활동과 수업을 연계하고, 체험활동의 범위를 넓혀 교과별 연계성을 갖도록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교과별 필독서를 정리하게 해서 수업과 연관성을 가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실을 다지는 연수가 필요하다

교육청에 요청할 것은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 소인수 연수로 내실을 다지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이 궁금한 교사들에게 딱 맞춘 연수를 기획해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 가능하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실재를 연습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계성을 가진 연수를 하되 팀으로 구성된 실력파들을 강사로 모셔서 선생님들이 세련된 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업을 바꾸는 데 힘을 더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의 미래다

선생님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의 다양화나 수업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별 융합교수도 필요하고 개별 교사의 다양한 교과 교수도 필요합니다. 교사의 수업역량이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어려운 시기가 곧 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연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건투를 빕니다.



대규모 대상으로 한 연수는 지양하고
소인수 연수로 내실을
다지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그것이 가장 큰 성과



진주제일중학교 교장 조창현

‘교육변화의 바람이 불다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자로서 성찰이 필요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의 장학사 생활을 거쳐 공모교장이 된지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학교가 ‘놀이터’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게 학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편안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업과 업무, 학생 생활교육으로 분주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하기

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힘든 일도 들어주면서 생활지도를 하는, 그렇게 수업이 삶으로 이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학교에서는 8번 정도 수업나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할까 참여가 조심스러웠지만 수석교사의 권유로 매번 참관을 했습니다. 수업관찰 방법에 대한 안내 자료를 보니 교사를 보지 말고 학생을 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시간 내내 한 모둠의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어떨 때 집중하고 어떨 때 딴 짓을 하는 지를 살피고 학생의 배움을 관찰한 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현재 3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월에 선생님들이 교사공동체 관련 사업을 신청할 때 무조건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업연구회에 속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수업학년이 달라서 그런지 서로의 연구활동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기도 힘든 환경이더군요.

그 문제는 한동안 저에겐 너무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연구 활동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해결방안으로 행복학교를 신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체제가 뒷받침이 된다면 학교 전체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선생님들의 동의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아마 행복학교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학교의 전망도 세울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침, 그 일을 하면서 수석교사의 직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특히 수석교사의 역할이 수업관련이라는 점에 근거해 수업공개와 참관, 협의회 등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주도해주시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내부적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학교 수석선생님은 수업연구회 운영을 하면서 본인의 수업과 회원들의 수업을 다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협의회도 진행하십니다.

일상을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며 함께 만들기

사실 저는 배움중심수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업관련 워크숍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특히 지난 8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한 자유학기제 관련 워크숍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변화에 대한 내용도 재미있었고, 특히 정재승 교수의 시관련 강연도 흥미로웠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했던 기억이 워낙 좋아서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무조건 다 갔으면 했던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긴 했지만 방학 중이라 관찮을 듯했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와서 요약 안내 자료를 만들었는데 교장이 함께 간다고 해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슬픈 일이었죠. 내년에는 희망하시는 분은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래 마음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장으로서는 참 힘든 점은, 너무 안타까운데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학생 등교시간과 교사 출근시간에 대해 오해가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해를 풀어야 했고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한참동안 고민했습니다. 우리학교 교감선생님이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다보면 언젠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규칙을 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라는 공모공약도 지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생겼고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사의 마음을 얻어라.’,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부터 ‘지갑을 많이 열어라.’까지. 올해 교장으로 발령받을 때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해가 다 가는 요즈음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뭘 했느냐?, 무슨 실적을 쌓았느냐? 공모교장이니 물으시는 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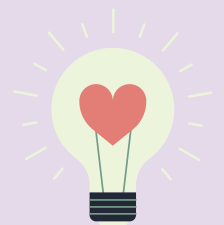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학년별로 실을 따로 만들어서 학년소속 교사들이 함께 하도록 학교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동학년 선생님들이 학년실에서 수업이야기도 함께 하고 학생생활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죠. 요즘 학년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이 바뀌니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 교장 한 명 바뀌었는데 웃음소리가 많이 나니 변한 것이 많다는 말. 이것이 저에게는 칭찬으로 들립니다. 올해 말에 학년실마다 커피메이커도 설치할 예정인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 함께 하는 동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첫걸음도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상호 신뢰와 민주적인 문화가 움틀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우리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더군요. 그냥 학습공동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전문적'이라는 말이 왜 부담스러울까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고 여기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전문가가 맞는데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고민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교사, 함께 성장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 관한
초등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

이선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은 창원 평산 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선영입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진주형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구봉초등학교 교사 진주형입니다. 저희 학교는 중급 규모이다 보니 교사들이 대화에 익숙해져있고, 연구실이 하나라 전 교사들이 잘 모입니다. 행복학교를 하게 되면서 개별 학급에서 하는 활동들보다는 학년이나 학년군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화하는 것이 없으면 프로젝트 등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교실 나들이의 형식으로 돌아가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저는 올해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이전 학교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수석교사이다 보니 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에 힘써야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교사로서 전문성을 신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결국 나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원 안녕하세요? 사천 서포초등학교 교사 김형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시골에 있는 6학급, 소규모 학교입니다. 저는 2015학년도에 전입을 했는데 그 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학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바꾸어보자는 합의를 하고, ‘사전협의-공개수업-사후협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수업을 주제로 모임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진주형 교육계획을 세울 때 목요일에는 행사나 교육활동을 잡지 않으려는 원칙을 두고 최대한 빠지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의 일, 아이들의 이야기들도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이나 교육과정의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이 없으면 학년별이나 학년군에서 운영할 교육활동이 되지를 않아요. 월1회는 수업공개를 하는데 공개할 학반만 수요일 6교시에 수업을 해서 전교사들이 같이 참관하고, 수업나눔은 수업비담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희망자들이 모여서 책 읽는 모임인 ‘도시락’을 운영하면서 책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2주에 1회 정도 하고 있답니다. 학년군 다모임의 형식이고, 교실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해당 학급 교사가 내용의 정리, 간식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월간 구봉’에 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선영 상당히 알차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는 학년군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시작으로 교육철학에 대한 공유를 위해 책나눔부터 시작했습니다. 책나눔은 학년군으로 구성하고, 공통 도서를 선정하여 주 1회씩 읽은 후 타학년군과 책을 돌려가며 책나눔을 하였습니다. 도서 선정할 때 원칙으로 첫째는 수업에 관한 책, 두 번째는 아이들의 내면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책, 세 번째는 수업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책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비자발적인 형태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영

다소 의무적인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수업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배웠고, 내년에는 좀 더 수업공개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관리자께서도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셔서 이런 주제로 공부하는 모임을 제안했지만 업무로 바쁜 선생님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반강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년별로 요일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제가 학년군별로 돌아가며 들어가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보려는 입장에서는 책에서 배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실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원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지 제작과 수업디자인에 관해 연수를 했습니다. 왜 질 높은 수업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다음, 전문가를 초청하고 수업을 보는 방법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관찰할지, 안목을 높이는 연습을 하고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한 것이 아니라 희망자 중심에서 점차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식으로 가기는 했지만 다소 의무적인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수업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하는데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서 많이 배웠고, 내년에는 좀 더 수업공개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김형원 저희 학교는 처음 시작부터 수업을 주제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각종 행사 관련은 따로 협의회를 마련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시간에는 수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임은 수요일 6교시로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은 자율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배우고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는 수요일에 하지만 공개는 화요일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14학년도까지는 매주 사전 협의, 수업 공개, 사후 협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수업을 바꾸려는 의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구성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와 닿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전문가로부터 ‘수업 공개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들이 지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부터 한 달에 2명 정도가 공개를 하고 연간으로 보면 1인당 2회의 수업 공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운영해보니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은?

진주형 학교 규모가 올해는 19학급인데 점차 커져왔습니다. 한 학년에 3학급 정도이다 보니 학년보다는 학년군으로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해보니 학년군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학기말 워크숍 때 학년군별로 활동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잘 운영된 학년군에서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자 소홀했던 학년군에서 ‘아~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나누는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영을 하다 보니 프로젝트 수업이나 계절학교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도 같이 높아졌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선생님, 그런데 다른 학년에 프로젝트 등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다보면 저학년 아이들이 고학년 활동에 대한 기대도 생길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우리도 저런 활동을 하겠지 하면서요.

진주형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깨닫게 된 일이 4학년 아이들이 1학년 동생들에게 자신의 나무를 소개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3,4학년이 되어도 프로젝트 활동은 처음이다 보니 고민을 하는데 한 아이가 ‘전에 형들이 하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죠.

이선영 그런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진주형 기록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월간 구봉’이라는 자료집을 3년 정도 만들어왔는데 만드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일이다보니 그 속에서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원래 시작이 자발성에서 나왔는데 부담이 크면 우리끼리 협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협의를 해보니 힘들지만 학교의 자료가 되고 의미가 있고 전임교사들에게는 학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료가 되니 힘들지만 계속 하기로 했어요. 대신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월간에서

분기로 조정했습니다. 결국 어려움은 우리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 시간에 대한 침해를 당했는데요. 간혹 목요일에 다른 행사를 잡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교사들이 협의회를 해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분위기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김형원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에 있는 것 같은데 수업에 대해 과연 내가 전문가인가를 자문하면 의문이 드는 거죠. 교사들 스스로 수업전문가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하다 보니 수업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정말 동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참 신기하게도 수요일에 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직원체육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계속 하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좀 아쉬운 부분은 6학급이라 사전 수업 협의를 할 때 동학년 교사가 없어서 학년이 서로 다르다보니 고민을 함께 하지만 나의 수업처럼 크게 와 닿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면서도 마음속엔 나의 수업은 아니라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학년과 고학년 교사들 간에는 학생이나 수업 내용에 대한 갭도 있죠.

진주형 제일 큰 효과는 선생님 말씀처럼 동료성의 회복인 것 같아요. 고민이야기를 전보다 더 잘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죠. 우스갯소리보다 힘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료에게 위로와 해결책을 나누는 것, 그러면서 동료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선영 저는 교사들이 학급 안에서 '번 아웃'되는 경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버리고 가는 자리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간혹 속상해서 우는 교사들도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후련해합니다. 교사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토닥이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자칫하면 수다스럽게 되기 쉬운데 적절한 제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주/형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하다 보니
수업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정말 동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전과 후의 변화

진주형 이전 학교는 전체회의 외에는 교사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급만 생각하고 지낸 거죠. 그런데 모임을 가지면서 학급과 학년을 넘어서 이야기하다보니 우리 학급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고의 범위가 학급에서 학교 전체로 확장된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과 이해도도 높아진 것 같아요.



학교의 문화나 자료들을 통해 전입교사들도 학교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 학교의 고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점에서 교육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도 생긴 셈이죠. 그리고 교육의 추세가 교사 개인에게 너무 책무성을 강요하는데 그러한 부담을 교육과정을 함께 하다 보니 학년의 책임, 학교 전체의 책임이 되어서 개인이 가질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놓치고 가는 것을 다른 교사들이 챙겨주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교육과정을 같이 고민해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운영합니다. 교사의 철학이나 관점이 다르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 저는 고경력 교사들의 먼저 나서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경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줄 때 전체적인 파급력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규모가 클수록 말이죠. 그리고 연구실에서 수업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지도 이야기도 수업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수업으로 생활지도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서 아쉽고, 함께함을 끌어내는 것이 힘들지만 나이를 막론하고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은 교사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것인데요. 고경력 교사는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젊은 교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하우를 끌어내고 같이 해야 합니다.

진주형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그런 고경력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끌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 학교 안에서 지내게 된다면 그 노하우는 그 교실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끝이 지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확대시키는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선영 어느 책에서 본 것인데요. 고경력 교사는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젊은 교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하우를 끌어내고 같이 해야 합니다.

진주형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그런 고경력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끌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 학교 안에서 지내게 된다면 그 노하우는 그 교실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끝이지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확대시키는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교직사회,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위한 당부

진주형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록을 하면 의미가 생기고 정리를 해야 명료화됩니다. 그리고 점차 쌓여가는 거죠.

김형원 시간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출장 등의 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이 있는 날은 꼭 지킨다.'와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수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 없이 공개되는 수업은 없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계속 하다보면 선생님들끼리 서로의 스타일을 알고 항상 고민을 함께 하면서 수업을 보기 때문에 이후에 수업 나눔에서 수업자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기에 당연히 분위기도 좋죠.

이선영 사전 수업 협의를 하고나서 수업을 보면 함께 수업을 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신의 수업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전 수업협의를 참여하지 않았다면 수업 나눔에 참여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수업협의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학교장 마인드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수업연구의 중요성을 알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주형 행복학교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각자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죠. 전에는 교장선생님이 없는 회의가 편했는데 이제는 불편합니다. 회의를 하고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사회의에서 결정

김/형/원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된 것이 실제로 진행이 될 때 교사의 발언과 의사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학년, 업무 배정을 하는데 교사들 중심으로 결정된 것을 교장·교감선생님이 수용해주는 거죠.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선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학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진주형 행복학교 예산을 활용해서 학급별 80만원을 지원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교 문제 논란에 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산을 잡으니 사실 사용이 잘 안 되었는데 경남교육청의 초등배움중심 수업연구회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픈 말은?

김형원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신장은 교사의 책무이고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결국 학교의 본질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이라고 본다면 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고민을 하는 교사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했으면 하는 수업을 선생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진주형 말씀하신 그런 책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워도 계속 지키며 해나가야죠. 그러다보면 장점을 알고,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선영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경남 모든 학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생소한 대상이 아니라 ‘아, 그거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똑똑한 내가 모여 따뜻한 우리가 되어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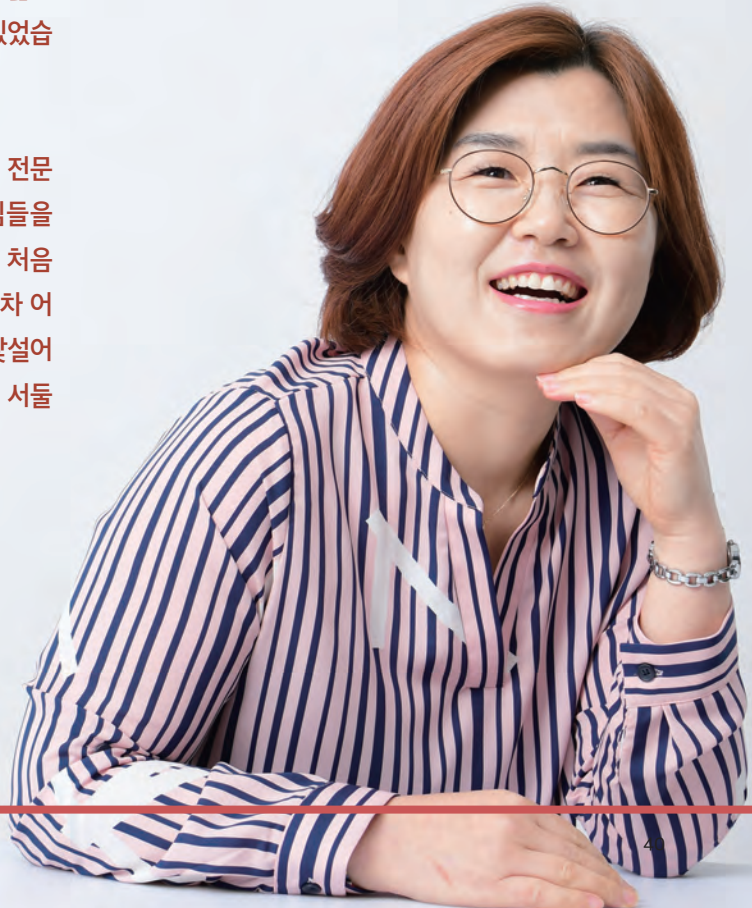
김명숙 (진해신항초등학교)



꿈꾸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망쳤어!’, ‘내일 수업은 어떻게 하지?’ 라며 일상의 수업을 주제로 동료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함께 수업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학교였습니다. 행복학교에 근무하면서 저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즐거움과 견뎌야 하는 괴로움을 통해 스스로 많이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성장을 저는 학교를 옮겨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나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제안하기 전에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둘러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c자로 마주 앉는 것조차 어색해 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낯설어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너무 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사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공이 아닌 실패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여 줘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생겨야하니까요. 성공한 이야기는 여러 자리에서 충분히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실패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요.

선생님들을 만나 이야기 하다보면 예상외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학부모와의 갈등, 아이들과의 관계, 심지어 교사들끼리도 소통의 문제로 주고받는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내 말만 했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소개하자면 DISK성격검사였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종합하여 자신의 성향을 찾고 같은 유형끼리 모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과 삼가야 할 말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소통의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중에서 대부분이 안정형이여 놀랐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는 선생님들의 표현이 적극적이지 않아도 덜 서운 했고, 좀 더 조심스럽게 제안하며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을 더 들였습니다. ‘공동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사가 된다

중등교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관한 솔직 대담

바람은 서늘해도 햇볕은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교사들이 순서를 달리하며 도착했고 어색한 인사가 있는 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힘들었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적 있다, 힘내라’며 서로를 위한 격려와 더불어 어깨를 다독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참동안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찻집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주는 따뜻함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말도, ‘학습’이라는 말도, ‘공동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따로따로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붙여서 ‘전문적학습공동체’라니! 우리한테만 익숙해진 이 말이 아직 낯설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담을 씁니다.



대 / 담 / 자

김해고등학교 **오혜진** / 팔용중학교 **이대호** / 웅동중학교 **신영남**
대암고등학교 **허언영** / 경남산업고등학교 **박미정**



오혜진

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은 김해고등학교 오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모두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대호

팔용중학교 이대호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제 나이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고민과 팔용중이 우리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도교육청 정책공모사업인 ‘배움중심수업나눔 중심학교’에 덜컥 선정이 되었고, 계획을 쓴 사람이 저라 얼떨결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영남

웅동중 신영남입니다. 우리학교가 ‘행복맞이학교’와 ‘행복학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업무담당 부서장을 하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허언영

창원 대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허언영입니다. 올해 전근을 오니 이미 업무가 정해져 있었고 ‘수업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도 제가 맡은 여러 업무 중 하나입니다.



박미정

경남산업고등학교 박미정입니다. 작년에 ‘배움중심수업나눔 중심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작년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던 분들이 대부분 학교를 옮기면서 교사동아리가 힘을 잃었고 새로 시작해야 했던 점과 좀체 활성화되지 않는 점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선배들의 조언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혜진

저도 교육부 사업인 ‘좋은수업나눔 교사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처럼 제가 담당한 여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함께 하고 같이 나누다

신영남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교사 자율동아리도 있고 학년 혹은 교과 중심의 연구회도 있고, 하지만 사실 운영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박미정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업무화가 필요합니다.

신영남 물론, 업무담당자가 있어야 책임감 있게 수업을 나누는 일이 추진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학교를 방문했던 컨설턴트가 ‘철학공유’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수업나눔에 대한 동료 교사들의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적이 싫다’, ‘지겹다’는 말씀도 많이 하면서 갈등이 반년정도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이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착하는 건 힘든 과정이 되겠죠.

이대호 업무담당을 두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신영남 그렇게 되면 교사의 자율성이 저하될까 걱정됩니다. 과거 수업공개처럼 형식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도 있구요. 수업나눔을 통한 성찰이 교사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말입니다.

이대호 여하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모든 학교가 하게 되면 모든 교사가 수업공개를 할 것이고 그러면 잘 된 일 아닌가요?

박미정 수업공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실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여부가 문제의 핵심 아닌가요?

이대호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도적 뒷받침이 생기는 것이고, 못하고 있던 분들은 어쨌든 하게 될 거니까 자생적 동아리가 갖고 있던 한계는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화가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구요.

허언영 자생적 교사 동아리는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대상도 일정해서 배움중심수업 확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대호 잘 하는 사람에게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혜진 본인의 빈 시간에 수업을 참관하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전문적학습공동체이든 그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결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형식이 운영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신영남 수업의 질이 높아져야 배울 것이 있을 것이고, 전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대호 업무담당자는 누가 공개할 건지 누가 참관할 건지에 관한 고민은 좀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일과시간 중에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니 엄청 편해질 것 같습니다.

신영남 수업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교사 대상 공개가 어떨지.....

박미정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수업공개는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수업공개는 보통 호봉순, 제비뽑기로 정하는데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정례화하면 교내 모든 교사가 할 거니까 공개 일정과 교사를 정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신영남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수업협의회를 통한 수업연구가 중심입니다.

오혜진 그래서 담당자가 꼭 필요한 것이죠.

신영남 정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구요.

박미정 담당자 연수가 꼭 필요합니다. 관리자 연수도 그렇고. 수업공개보다 협의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니까요.

오혜진 양산의 한 중학교는 배움중심수업의 확산을 위해서 세분화된 단계로 실질적 수업변화를 촉진했다고 합니다. 전체공개, 학년공개, 동과공개 등으로 공개범위를 다양하게 했더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구요. 서로 또 함께 기다려주면서 학교가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박미정 운영이 가장 어려운 것은 동아리로 시작한 전문적학습공동체입니다. 구성원이 줄어들자 바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부서별, 교과별로 운영 형식에 변화를 주니 운영조차 안 되고 협의회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수업공개를 위한 동아리밖에 안되더라구요.

허언영 시스템의 도움이 절실히 지는 지점입니다. 공개수업은 참관하지만 협의회 참석은 안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교사, 수업으로 나누다

박미정 사실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교내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움이 절실하죠.

신영남 답도 없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오래동안 함께 생활한 한식구인데도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시다. 수업공개 업무를 맡아서 2년 정도 수업참관을 안내했지만 여의치 않았구요.

4년 전에 내용도 괜찮고 예산도 주는 행복맞이학교를 신청해서 운영했는데 잘 몰라서 한 학기를 어영부영 보냈습시다. 그때는 '수업공개만 해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시다. 2학기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컨설턴트의 조언을 들으면서 많은 교사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진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하면서 전체 교사가 참여하게 되었나요?

신영남 다 같이 하게 된 것은 2015년입니다. 제 수업이 첫 수업공개였죠. 계기가 필요했었고 행복맞이학교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공개수업을 참관하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요즘은 수업공개를 하면 다들 그냥 오습시다. 협의회도

계속 하구요.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수업공개 때마다 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늘 함께 하습시다. 매번 참여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오혜진 아, 교장, 교감 선생님이 늘 오시는군요.

이대호 그런 일은 교장, 교감 선생님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관리자 혹은 관리자 수준의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끄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구요.

신영남 누군가가 이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은 학교 전체가, 교사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혜진 한 사람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바꾸고,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영남 네, 맞습시다. 개별 교사는 바꾸기가 힘들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기대고, 손잡다

박미정 연초에 신규교사와 저경력교사 중심의 수업컨설팅이 있었고 동아리와 동교과 교사들 중심으로 협의회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경력 교사들 참여율저조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혜진 교과군별 협의회는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전공분야라서 그런지 수업을 본다고 오해를 찾으려는 경향이 드러나기도 하구요. 그래서 교사들끼리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업협의회는 전교사로 확대하는 것이 수업연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정 교과별 수업참관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는데 경력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데도 멘토링이 잘 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왜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았습니. 외부 컨설턴트 초청은 그런 분위기를 쇠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혜진 컨설턴트의 도움을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영남 **선생님 수업컨설팅을 최근에 받았습니. 작년에는 잘 몰랐는데 그간의 실천으

로 참여한 모든 교사들이 깨달음을 얻은 시간이었죠. **교수님의 수업컨설팅에는 수업참관 전에 교실을 돌아보면서 전반적 분위기를 점검하고 그 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수업컨설팅과 맞먹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찰이 더 깊어져서 내부적 성취감이 학교의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칭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수업협의회 시간, 내공있는 교실은 협의회 질이 높습니다.

허언영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것도 수업을 공개하신 분에게 보상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도 반드시 하고 칭찬도 많이 해야 합니다.

박미정 수업공개와 협의회는 하나의 세트죠.

이대호 협의회…… 빼면 안되나요?

모 두 안됩니다! 안하면 배움중심수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허언영 협의회를 통해 공감을 하게 되니까요.

서로 칭찬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수업협의회 시간,
내공있는 교실은
협의회 질이 높습니다.
- 신영남





박미정 ‘더 잘하라’가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자리인 협의회가 교사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요즘의 협의회는 옛날 협의회와는 다르게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신영남 아쉬운 점을 보듬어주어서 다음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좋은 피드백을 통해 서로 배우는 협의회, 그런 협의회가 없으면 수업공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혜진 다른 학교의 수업을 참관할 때였는데 너무나 시끄러운 수업 속에서도 태도가 정중했던 교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었고 장점을 여럿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배움중심수업을 하면 예전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보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도 했구요.

이대호 수업공개에 두려움을 가진 교사들도 자꾸 공개하다보면 두려움이 덜어질 거니까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것, 괜찮지 않나요?

오혜진 수업공개가 좋은 경험이라야 두려움도 줄어들 겁니다. 수업을 열었는데 협의회를 대충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 신규교사들도 공개에 대한 불안감이 컸는데 준비를 하면서 극복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보듬는 협의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영남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할 때 수업공개는 제 비뿔기로 정했습니다. 신규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어찌면 폭력이니깐요. 첫째는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컨설턴트가 얘기했지만 신규들이 공개를 했고, 2년째에는 부장들이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모두 12월에 한다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아마 ‘그 때는 안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철저히 지켜서 수업나눔을 실천했더니 3월에 먼저 하겠다는 분도 생기고 하면서 협의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원칙대로 운영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확인했습니다.

힘이 되는 자리, 힘을 주는 어른

오혜진 관리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나는 열심히 하는 교장’이라고 하면서 ‘교사들에게 너무 부담주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다소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신영남 관리자들이 배움중심수업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업 진단이 가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얼마 전 타이머를 주면서 교사들에게 자신이 말하는 시간을 재어보라고 하더군요. 점점 강의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교사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진단한 결과로 피드백을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전문가가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미정 오, 교장선생님이 아주 든든하십니다.

오혜진 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이대호 교사의 참여를 이끌려면 교장, 교감 선생님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허연영 행복학교에 근무할 때는 일반 교사와 함께 교장, 교감선생님도 수업나눔에 참여해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고 그 기억이 좋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을 관찰하는 교사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차이가 참 크다고 싶기도 했고, 중요한 건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의 공유가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영남 관리자가 함께 하는 수업협의회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안 가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 관리자분들도 관망자가 아니라 교사와 동일하게 참여하는 것이 수업나눔을 실천하는 질 높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지원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정 사실 교사들도 관리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색하긴 합니다.(웃음)

허언영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럽지만 교사들과 같은 참관 형식을 취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자들도 철학을 공유해야 수업나눔에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영남 교장선생님들도 수업공개를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업나눔에 함께 참여하면 철학에 대한 동의도 이해도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진 배움중심수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관리자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고교에는 입시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힘들텐데 바꾸라고 하면 부담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수업나눔에 참여하라는 독려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본인은 수업참관과 협의회 참여를 하는데 일반 교사들의 참석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관리자분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 같습니다.

오혜진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배움중심수업을 실천하는 데는 학교 현장이 느끼는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고 도교육청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성실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애뜻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더 빨리 바뀌리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학교 현장이 느끼는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고 도교육청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 오혜진



생생학교 이야기

조보형 (통영고등학교)



‘수업은 공공재다!’

지난 3년간 통영고등학교 20여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서 깨달게 된 사실이다. 수업은 절대불가침의 교사 개인영역이 아닌, 참관과 협의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열린 장임을 안 것이다.

2014년 이후 수업전문성 신장 연수를 들으면서 ‘수업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교사공동체가 있었으면.....’하는 막연한 안타까움으로 속을 태우기도 했었다. 그리고 2016년, 함영복 교감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마침내 통영고등학교에 전문적학습공동체 ‘생생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수업을 보다

처음엔 정말이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때문에 수업공개가 있는 다른 학교를 무작정 찾아 간 것은 우리에게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해, 함안 등 거리를 따지지 않고 수업을 보러 다녔으며, 그 때마다 10 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 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교장이었던 구성부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있었다. “배우고자 하는 교사에게는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 배움에 대한 끊임 없는 연찬을 하는 교사가 참교사이다”라며 격려해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고 차도 한잔 하라”며 금일봉으로 마음을 보태시던 모습이 지금도 미소를 짓게 한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작 수업을 보러 찾아다니면서도 왜 수업을 봐야하는지 무엇을 봐야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 당시의 안목으로는 강의식 수업, 모둠식 수업, 학생활동 수업 등 수업의 겉모습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상 수업을 봤지만 특별할 것 없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서 교내 회원 간의 수업 열기를 시도하였다. 사실 수업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것을 꺼려한다.



수업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아이들의 배움, 교사의 배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던
학교가 달리 보이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
다. 수업만 하루 4~5시간, 비는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사무업무, 학급업무, 수업준비 등 산재해 있는 일
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역시나 특별할 것 없는 수업이다. 하지만 서서히 학생
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꿈도 의욕도 없이 수동
적으로 앉아만 있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하나하나
빛나 보이기 시작했다. 사소한 것도 서로에게 물어가
며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 배우기 위해서 혹
은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감동으
로 다가왔다. 수업 참관 후 협의회를 하며 함께 반성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도 시작되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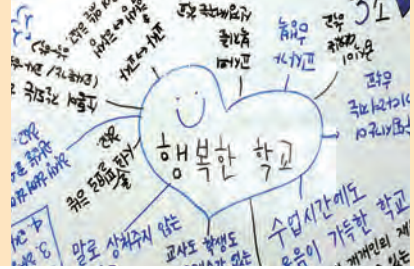
아무리 좋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 해도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가 없으면 형식에 불과하다. 때문에 철학의 공유를 위해 수업 개선과 관련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을 하였다. 격주로 수요일 7, 8교시에 모여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때로는 학교생활에 관한 고충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때 공동체의 끈끈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특히 9월 모임 때 신규 발령 2년 차로 고3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시모집전형시기 대학 지원을 위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물짓던 모습에 함께 마음 아파했다. 또 다른 선생님은, '학교의 큰 사업을 맡아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이로 인해 수업은 수업대로 소홀해지고 아이들과 소통도 점점 힘들어진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 선생님이 용기를 내어 수업을 열기로 하였고 회원들과 수업디자인을 함께 한 뒤 수업을 공개했다. 수업을 참관한 여러 회원들은 협의회 때 해당 수업을 통해 자신이 성찰한 긍정적인 부분을 한마디씩 해주었고, 수업자 선생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시며 '치유가 된 것 같다'며 감사해 하셨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며 '언제든 수업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무엇을 하건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모임 때마다 조별로 독서토론 및 활동 주제를 정해 오기로 했고, 모둠별로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 연수를 다녀온 선생님은 연수에서 배운 것을 모임 때 공유하였고, 한창 수업 기법으로 떠오르던 '비주얼싱킹', '솔라리움카드', '프레지' 등을 함께 실습하였다. 유명 강사들을 직접 학교로 모셔와 회원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귀중한 경험도 하였다.

돌이켜 볼 때 교장, 교감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무모할 정도로 참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단위의 수업 혁신과 학교 혁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다른 학교의 사례가 궁금하여 방학식 후 부산 만덕고등학교, 세종국제고등학교 등을 회원들과 함께 견학하였다. 소외계층의 아이들까지 학교가 끌어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우리 모두가 부러워마지 않았던 수준 높은 공교육의 모습에 미래 교육의 방향성도 고민해볼 수 있었다. 멀리까지 간 김에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회포를 풀기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경험 또한 '생생학교'의 결속력을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솔라리움
카드 실습장면



전문적학습공동체 왜, 필요한가?

하지만 행복학교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들의 의지만으로 수업을 바꾸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렵게 마련한 회원 수업 공개를 전체 교사에게 알려 참여해 주십사 해도 비회원이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여전히 수업을 본다는 것은 곧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관은 동료 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암묵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입시를 방패로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강조하며 '다 필요 없다, 수능특강이 최고다'와 같은 말들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인식의 차이는 너무도 컸다.

회원들끼리 계속 성장하고 친해지면서, 함께하는 우리는 좋지만 과연 수업 개선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생생학교'가 한 역할은 무엇일까 자문해 본다. 수업 개선여부 선택은 본인의 몫이더라도 우리의 활동 모습을 통해 '저 사람들 모여서 뭐하지?'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수업 개선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생생학교'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결국 수업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아이들의 배움, 교사의 배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던 학교가 달리 보이게 되었다. 교사가 바뀌면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면 모두가 행복한 '내 학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행복의 열쇳말, 내 옆의 동료!

최선희 (양산중학교)

‘행복학교에 근무하면 행복하냐?’는 질문을 자주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썩 난처한 물음입니다. 질문의 형태를 띠었지만, 두려움과 불평, 질책을 숨긴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경남형 혁신학교의 이름이 하필 ‘행복학교’가 되면서,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 반발심이 저 같은 언어유희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행복한가? 교사로서 행복은 뭐지? 처음으로 교사로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했습니다. 교사의 보람, 사명 따위도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매일이 괴로우면 어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교사에게도 ‘지금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또 교직의 길을 걷겠죠.

사소한 애쓰음을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옆 자리 동료, 어려운 일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모색하는 선배교사, 사소한 생각들도 함께 보살피며 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내는 학년선생님들, 이 과정을 통해 시나브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 ‘우리’라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있어 매일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행복을 느낍니다. 4년째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몸담아 오면서 그 행복의 원천이 내 곁의 동료교사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꽃,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애초 우리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교육을 펼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던 학교였다는데, 헌신적인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선배 교사가 많은 학교였습니다. 행복(맞이)학교가 우리 학교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학년형을 시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교육을 더 확장해서 펼치면서 지금까지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핵심은, 나의 수업을 내 곁의 동료와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마음이 맞는 과제를 하나씩 함께 해결하다 보면 성과도 조금씩 커지겠죠?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핵심은
나의 수업을 내 곁의 동료와 나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서 우리 학교는, 우선 수업공개 사전 협의회를 통해 수업 나눔을 준비하는 교사의 학습지 고민을 함께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장 많이 서로 배웁니다. 수업 나눔이 끝나면 학생들도 '학생 수업협의회'를 별도로 진행해서 공개 수업과 일상 수업에서 자신들의 참여 태도를 돌아봅니다.

또, 학년 협의회를 통해 통합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실행하며 평가합니다. 입학 후 2주간 진행하는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2학년 수학여행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 3학년 학기말 특별교육 과정 등도 이 자리를 통해 진행했죠. 학년 선생님이 함께하는 과정이라 동료의 협력이 가장 잘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교과 협의회도 꼭 챙겨서 월 1~2회 진행합니다. 동교과 선생님들과 시간을 두고 만나 서로의 수업과 평가 방법을 공유하고, 교과 고민 등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성장을 돕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원리라도 실제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개별 학교의 특수성을 알고 있고 그 특수성을 살피 수업을 고민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가장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상호 배움의 자리가 아닐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첫해가 떠오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학년선생님들이 뚝뚝 뭉쳐 항상 학년 문화를 만들고 수업을 함께 만들다 보니 동지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서로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 한두 사람씩 날마다 간식을 챙겨오는 바람에 한 해 끝에는 모두가 '행복한 꽃돼지'가 되어버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기도 했지요. 가장 서툴렀지만 가장 행복했던 해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동료교사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면, 그 마음의 출발선을 맞추게 가장 어려웠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처음 할 때에는 낯설고 몰라서 어려웠죠. 게다가 뭔가를 하려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귀찮다, 이거 왜 하노?' 동료 교사의 흔한 반응입니다. 피할 수 없는 소리이고, 당연한 소리입니다. 학교 일은 줄지 않았으니까요. 불만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담았고, 수업을 바꾸기 힘든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그럼에도, 수업이 들어도 내성이 생기지 않아 늘 신경이 쓰입니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선생님들께 뭔가를 하자고 애써야 하는 현실. 갈등을 부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눈치 봐야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업을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교사들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이 아니더라도 경력 교사들은 좋은 자질과 훌륭한 수업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교사의 수업에 대해 우리는 조금씩 배울 점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먼저 수업을 나누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사들의 다양한 수준과 처지를 고려하여 수업 나눔의 방식도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조금씩 서로를 격려하며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기로 하자 도리어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안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힘들고 귀찮지만, 참 좋네, 도움이 되네.'하는 소리가 서서히 들려옵니다. 소극적인 교사들도 함께 하는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십니다. 수업을 교사 개인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수업이 공적인 것이란 인식 전환과 더불어 수업도 덩달아 변해갑니다.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제각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오늘도 성장 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

지금까지도 제게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배울 권리가 있다'라고 늘 알려주십니다. 교사로서 성장하는 제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알려주신다고 속 짐작을 합니다.

여느 직업에 비해 실수가 적어야 하는 교사이지만, 신이 아닌 이상 여러 노력과 시도에도 수업은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수업 변화라는 과제 앞에서 두렵고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이고요. 그 어려운 길 위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기댈 수 있고, 실수를 줄이도록 돕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서로 보고 배우며 지지하고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소통과 훌륭한 배움의 장이 됩니다.



감정카드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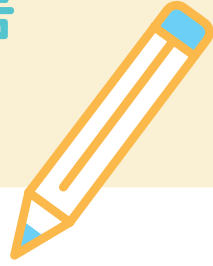


모둠활동

이렇게 좋은 데도 못할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시간 부족입니다. 행정 실무사가 많이 도와주고 업무가 분리된 행복학교에도 선생님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업 시수도 많고, 여전히 잡무도 많습니다. 때때로 다투거나 문제가 생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투덜거리는 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수업을 바꾸고 준비할 시간과 심리적 여유 없이 전문성을 키우라는 요구는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소리 같아 서운합니다. 여느 직업에 비해 헌신성과 사명감이 큰 선생님들의 자발적 열정에 의지해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이라면, 이 아름다운 마음이 더 지치기 전에, 저 뜨거운 열정이 식기 전에, 옆자리 선생님과 숨 돌리고 눈 한번 맞출 수 있는 여유, 수업에 대한 고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도록 제도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나눔 [함께] 편집후기



중등교육과장 _ 최돌숙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제 나는 잊혀진 교사일 뿐’이라는 생각에 슬퍼 지곤 했습니다. 그 무렵 교사가 되어 우연히 마주친 체육특기생 제자가 “선생님 수업은 일부러 코치님께 말씀드려 훈련할 때도 꼭 빠지지 않고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라고 했던 말은 지금도 제 마음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활동하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학생들이 몰입할 것인가?”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바꾸면 학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그런 행복한 수업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생님들은 누군가의 가슴에 기억되는 교사일 테니까요. 행복한 배움중심수업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경남의 모든 선생님, 파이팅!

초등교육과장 _ 장운익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수업공부 모임’입니다. 가르침을 주고받는 자리라기보다, “함께”하며 익힌다는 의미가 큼니다. “함께”하면서 배움중심수업의 가치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긴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가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바다에서 만납시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_ 이일만

저에게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소식나눔지 “함께”가 “고군분투기”라고 느껴집니다. 처음 발간 계획이 “우수사례를 신지 말고, 힘든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보통의 학교 이야기를 신자.”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열정을 다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그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몇몇 교장선생님들께 사례를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드렸을 때, 극구 손사래를 치셔서 설득하느라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밝힙니다. 교장 선생님! 좀 덜 겸손해 지셔도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변화에 도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_ 박성흠

교장선생님들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이 배움중심수업에 값진 거름이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일도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면 못할 게 없다는 인터뷰 속 다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보다 몸소 보여주는 행동에서 더 깊이 배운다고 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학교에서 일상이 되면, 아이들도 그 일상 속에서 같이 커 갈 것입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우리 교직 사회에 튼튼한 전문성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중등장학담당 장학사 _ 윤성희

‘이제, 교사가 되다.’ 인터뷰를 할 때, 한 선생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마주했습니다. 재직하시는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 마음을 움직여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어떻게든 함께 꾸려가려고 했던, 너무도 힘들었던 기억을 불러낸 탓이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인터뷰에 참석했던 다른 선생님들과 먹먹한 순간을 같이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의 거의 드시지 못한 밥공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신 선생님, 선생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초등장학담당 장학사 _ 최진수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배움’이란 “함께”와 참 잘 어울립니다. 함께 있으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더 자세히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울리며 따뜻하게,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데워봅시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봅시다.

중등교육과 파견교사 _ 김경숙

수업혁신지원을 위해 가까운 혹은 먼 길을 다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실천과 연구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서로 돕는 배움 속에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 따뜻한 웃음, 활기찬 말소리를 만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경남교육은, 이상을 희망으로 그리고 현실로 만 들고 있구나!' 하구요. 자꾸 믿음이 커집니다. 함께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 파견교사 _ 전지영

우리에게 학교는 직장이라기보다 삶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고, 동료와 마음을 나누는 일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중한 업무로 느껴지는 이유는 학교 현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업무경감과 동시에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여러 여건이 “함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